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2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일 2022년 4월 1일 금요일

강하고 빨라진 타이거즈가 온다

2022 프로야구 내일 개막

KIA, 광주서 LG와 대결 나성범·김도영 활약 기대

4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호랑이 군단'이 포효한다. 〈관련 기사 18면〉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KBO 2022 개막전을 갖고 '가을잔치'를 향한 144경기 대장정에 나선다.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이 승리를 향한 첫 스타트를 끊는다. LG에서는 새 외국인 투수 애덤 플럿코가 선발로 출격한다.

'변화의 시즌'을 예고한 KIA는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선다.

KIA는 지난해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에 실패한 뒤 사장·단장·감독을 모두 교체하면서 새 판을 짰다.

장정석 단장을 필두로 스토브리그에서 '대어' 나성범을 품에 안고, 양현종도 불러들인 KIA는 '원클럽맨' 김종국 감독을 내세워 전력을 새로 다졌다.

'호랑이 정신'을 강조한 김종국 감독은 경쟁을 통해 더 단단해진 팀을 구성했다.

나성범을 3번에 배치한 김종국 감독은 최형우와 황대인으로 '신구 조화'를 이룬 클린업 트리오로 타선의 무게를 더했다.

'차세대 거포' 김석환도 좌익수 경쟁에서 승자가 돼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KIA는 뛰는 야구로 득점력도 높였다.

'도루왕' 출신 박찬호가 타격에도 힘을 실으면서 공·수·주에서 주요 선수가 됐고, '신형엔진' 김도영이 등장해 그라운드 분위기를 바꿨다.

뜨거웠던 야수진의 내부 싸움, 마운드의 키워드도 '경쟁'이었다.

임기영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서 한승혁, 윤중현, 이민우, 유승철 등이 선발 경쟁을 벌였다. 한승혁이 달라진 제구로 어필하면서 양현종-놀린-로니-이의리-한승혁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2022시즌 스타트를 끊는다.

옆구리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임기영도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하는 등 복귀를 위한 걸음을 재촉하면서 선발 경쟁은 제 2막을 앞두고 있다.

김종국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가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2022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신구조화로 더 강하고 빨라진 KIA는 올 시즌 4년 만의 '가을 잔치'에 도전한다. 사진은 2022시즌 KIA를 이끌어 갈 '주장' 김선빈, '150억의 사나이' 나성범, '차세대 거포' 김석환, '최연소 30세이브' 정해영,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 '팔색조 좌완' 션 놀린, '슈퍼루키' 김도영.

/그래픽=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지난 시즌 9위라는 팀 성적에도 '30홀드-30세이브'를 합작했던 장현식과 정해영은 올 시즌에도 불펜을 굳게 지키고 있고, 부상에서 벗어난 전상현도 가세하면서 '뒷심싸움'도 흥미롭다.

새로 구성된 '외국인 3인방'은 초반 성적을 좌우할 키다.

KIA는 올 시즌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좌완 션 놀린, 우완 로니 윌리엄스를 새로 영입했다. 새 팀에 녹아든 세 선수가 물음표를 지우고 초반 질주에 역할을 해줘야 한다.

다시 관중석을 활짝 연 KBO는 올 시즌 '새 얼굴'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KT 라모스가 좌우타석 가리지 않고 홈런을 때려내면서 눈길을 끌었고, LG 플럿코는 시범경기에서 6타자 연속 탈삼진을 뽑아냈다. 키움 푸이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올 시즌 뜨거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도영을 필두로 '무서운 신인'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김도영은 0.432의 타율로 시범경기 타격 1위에 오르며 '제 2의 이종범'을 외치게 했고, LG 송찬의는 6개의 홈런을 날리며 파워를 보여줬다.

부상으로 프로 데뷔가 늦어졌지만 진흥고 출신의 한화 문동주는 캠프 기간 155㎞의 강속구를 뿌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코로나 광주·전남 하루 2만5천여명 확진 ▶2면
광주일보 제9기 11차 독자위 회의 ▶10면
북스 - '이야기 세계지리' '시드볼트' ▶14·15면

알립니다

70 SINCE 1952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지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종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갈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경력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마감	4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4월 5일(화)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7일(목)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11일(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전기·가스…오늘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1일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인 가구 전기요금은 2400원 가량 오르며, 2000MJ(메가줄)을 쓰는 가구당 가스요금은 월 860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광주지역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은 2.8(난방용)~3.1%(취사용) 인상된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영업1종 가스요금은 3.0~3.1% 오르고 산업용은 7% 안팎 인상된다. 광주에서는 주택용 64만7705호, 영업용 1만7339호를 포함한 67만1939호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요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이번 인상과 별개로, 오는 7월 광주시가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승인하면서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6.9원)이 반영되며 한 달 307kWh를 쓰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기존 4만5990원에서 이달부터 4만8400원으로, 2410원(5.2%) 오른다.

광주·전남에서는 주택용 116만5086호를 포함해 206만6964호가 전기를 쓰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